

전국체전 기획 12년 만에 열리는 제주 전국체전 기대 효과

체육 인프라 고도화... ‘관광 제주’ 재확인

수만 명 방문 따른 소비 촉진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체육시설 현대화로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기반 확보
독창적 문화 등 제주만의 매력 뽐내는 관광체전 추구

올가을 가을바람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뜨겁게 달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다시 열리는 이번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한 단발성 체육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의 역점 추진 방향을 실리적인 지역 경제 효과와 창출, 도시 인프라 고도화, 그리고 제주의 청정·문화 브랜드 가치 확산으로 설정하고 막바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가 얻게 될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와 미래자산을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제주 스포츠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국제대회 유치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가 얻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하드웨어적 성과는 도내 전역의 체육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대화다. 서귀포시에 신축 중인 서귀포시종합체육관을 비롯해 도내 총 63개소 경기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작업이 완료되면, 제주의 스포츠 인프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공공 자산들은 대회가 끝난 후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겨울철 국내외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단이 찾는 사계절 전지훈련지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제주의 온화한 기후 조건에 공인 규격을 갖춘 최신 경기 시설이 더해짐으로써 전지훈련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검증된 경기 시설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 규모의 대회 및 국제 스포츠 이벤트

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내 체육 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스포츠 산업 활성화의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대규모 소비 진작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대회 기간 전국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 수만 명의 인원이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내수 시장에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적인 체전 개최 효과를 넘어 이번 대회는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 협업 제도를 동반한다.

대규모 선수단과 인원, 관람객의 유입은 도내 숙박업, 외식업, 렌터카, 관광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부 대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참가자들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회 환경 조성 역량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체전 기간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다듬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분야별 행정 지원 프로세스를 촘촘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과 관람 편의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서 정비된 도내 경기 시설들이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의 실무적 보완 사항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관람객과 자원봉사자, 선수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제주의 성숙한 행정 역량과 도민 사회의 협력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제주의 위상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독창적 정체성을 담은 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체전을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 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구상 중이다. 특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에는 제주가 가진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전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연출을 기획하고 있다. 제주의 고유한 매력과 역동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연출을 통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문화 관광 도시 제주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내 문화 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체전이 제주에 남길 가장 위대한 무형의 자산은 70만 도민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숙한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이다. 최일선에서 활약할 3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4470여 명의 도민 서포터즈가 보여줄 따뜻한 환대 문화와 단합된 힘은 대회의 성공을 완성하는 핵심 원동력이자, 향후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령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 전국체전을 대비해 조성되는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조감도.

제주도체육회 제공

제주유도 꿈나무들 청소년 대표 발탁 남중부 정태후·양준훈... 여중부 양아름·문다희

제주유도 꿈나무들이 잇따라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정태후



양아름



문다희

14일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양아름(애월중 2, -45kg)과 정태후(애월중 2, -45kg), 문다희(귀일중, +70kg), 양준훈(한라유도클럽, -90kg)이 올해 국내 대회에서 잇따라 상위권에 입상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인정받아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정태후는 지난 4월 끝난 2026 김천컵 전국유도대회 남자중등부 -51kg급에서 5연승으로 시상대 최정상에 오르는 등 올해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최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양아름도 2026 화강기전국유도대회 금메달과 양구평화컵대회 은

메달을 따내는 등 대회마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정태후와 양아름은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어 차세대 대한민국 유도를 이끌 수 있는 기대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2026 김천컵대회에서 잇따라 한판승을 거두는 압도적 경기력을 선보인 +70kg급 문다희(귀일중)와 2026 춘계연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90kg급 양준훈(한라유도클럽)도 청소년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위령석기자



“제주 초중고 여학생들 모두 모여라”

도교육청 ‘2026 청춘 걸 고(Girl Go) 리그’ 개막

55개교 참여...11월까지 경쟁

제주지역 초중고 여학생이 함께 뛰는 ‘스포츠 리그’가 다시 시작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1일 개막한 ‘2026 청춘 걸 고(Girl Go) 리그’다.

>> 사진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대회는 정식 종목에 농구를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을 위한 바운스발리볼도 운영한다. 지난해 배구에 한했던 종목이 늘어나면서 참여 대상도 넓어졌다.

종목별로 보면 농구 리그에는 모

두 18개교가 참여한다. 여초부 2개교, 여중부 9개교, 여고부 7개교다. 배구 리그에는 여중부 18개교, 여고부 12개교 등 30개교가 경쟁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 팀은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에 등록해 활동하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초등 바운스발리볼 참여 학교까지 포함하면 모든 종목에 55개교가 함께한다.

경기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학교체육관에서 펼쳐진다. 같은 달 예정인 ‘2026 청춘 걸 고 페스티벌’에선 종목별 우승 팀을 가리는 4강전이 치러진다.

김지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 (재)	6: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7:00 트레킨보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 (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 좋아좋아 스페셜 11:15 건강의 재구성 썰북 (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뽀빠!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미리 가본 대학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평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황스파대 파이어보이즈 17:50 처음 배우는 AI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10 열린채널 14:50 어린이동화(재) 15:20 인생이 영화 (재) 16:00 사이다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육방방의 문제아들 (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 2타임 15:15 월드 24 15:45 마카로니 3 (재) 16:00 TV 유치원 (재) 16:30 영상앨범 산 (재) 17:00 김치 아일랜드 2 17:15 청춘불패 17:30 꿀벌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 (재) 13:25 최고의 호기심 딱지 (재) 13:55 2시 뉴스 외전 14:55 2026 MBC에 대한뉴스 결승전 17:10 PD수첩 (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 (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애나광리 16:00 네모세모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 (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탐나는 보이스 13:40 여과 들고 등짝 스매시 15:30 소리원정대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아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하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리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1000회 특집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타임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누난 내게 여자야 2 23:20 토요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 (재)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김부장 (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야영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신국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5일
	36년 자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갈 곳이 생긴다. 48년 독선적인 자만은 금물. 주변의 지혜를 얻어 추진하라. 60년 자녀의 진로로 동분서주. 자금이 지출된다. 72년 자녀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 취업이 필요 시 동북간 방향이 길. 84년 외출이나, 모임이 있다. 이성교제는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37년 마음이 먼저 분주하고 할 일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 주변의 협력을 얻어라. 49년 이동 이사가 있거나 변화가 생긴다. 부부간 인행자제 필요. 61년 경쟁심리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다. 피할 수 없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라. 73년 취업, 승진, 합격, 승인, 계약의 기쁨이 있다. 85년 나를 필요로 하면 봉사하라.
	38년 몸이 나른해진다. 의욕을 갖고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50년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한 발 뒤에서 내일을 계획, 준비함이 필요. 62년 자식에 대한 일, 가족간 의논할 일이 생긴다. 74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86년 할 일이 늘어나고 취업이나 학업의 기쁨이 있다.
	39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1년 집안에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드린면 좋다. 63년 귀인 도움으로 일은 해결된다. 부부애정 적 신호. 75년 강한 의욕으로 업무는 추진하지만, 대인관계나 이성교제에 올인 하지마라. 87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떠오른다.
	40년 자녀의 일로 고민 상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 연결조심을 하라. 52년 갑작스런 소식에 놀람이 있고, 주변인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64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 여유와 휴식 필요. 76년 자식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88년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이나 일은 기쁨 2배, 성과의 효율성은 배가 된다.
	41년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라. 53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은 유리하다. 65년 농·수산업분야 아침부터 분주해진다. 77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아릅답다.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이 필요. 89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42년 술과 인연이 많으니 운전 삼가. 54년 부부간 사소한 논쟁이 다툼으로 변진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삼가. 66년 문서문이 길하고 재물이 있으니 계약, 매매, 인허가, 승인 관련 실익이 있다. 78년 금전상 이득이 있는 날. 미혼자는 지출이 커진다. 90년 친구와 다양한 대화가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43년 업무추진이 서서히 해결되니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55년 동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자본한 계획과 점검이 선행. 67년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피곤하고 몸살기운이 있다. 79년 직업에 대한 갈등과 변화로 고민. 주변의 협조를 구하라. 91년 화남은 내게 해가 되니 건강관리에 우선한다.
	44년 의외로 일이 풀리거나 협조를 받는다. 매매나 가게 등 처분 시 해결된다. 56년 자식문제로 가정불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업무로 스트레스. 68년 과다한 기대나 연동은 금물. 신중함이 필요하고 기대하지 마라. 80년 동료나 친구, 형제자매와 언쟁이 있거나 다툼이 생긴다. 92년 원칙에 충실하면 인정받는다.
	45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안이 있다. 57년 정도를 지켜 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 위로 부터 인정받는다. 69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따른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81년 부모님, 윗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발생한다. 93년 운이 호조되고 몸이 분주하나 건강은 유의.
	46년 절도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58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라. 7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82년 친구간 논쟁 또는 경쟁하면 상대방에게 패하거나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 94년 구매회 중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47년 자녀가 소식을 전해오고 용돈이 생기는 날. 59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는 자제가 필요. 71년 집안 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83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교제 길. 96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